

군산 새만금 방조제 소송 기각

대법원 최종 선고... 2013년 3·4호 기존 판례 적용

시 "행안부 과도한 권한 등 지방자치권 침해" 대응예고

군산시가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렵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본 소송은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바 있으며, 지난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182억원 체납 지방세 제로화 도전

지난해 징수율 54%... 분기별 목표액 설정해 연 4회 일제정리기간 운영

익산시가 182억원에 이르는 체납 지방세의 제로화에 도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49억8600만원, 시세 132억4700만원 등 총 182억3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익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초한다. 도세의 경우 88억4000만원의 체납발생액 가운데 38억5400만원을 정리해 49억8600만원으로 줄였다.

도세 체납발생액의 경우 2019년도 이전 54억원, 2020년도 34억4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이전 19억 4800만원, 2020년도 19억6000만원이 징

수됐다. 징수율은 2019년도 30.4%에서 2020년도 55.4%로 증가해 총 40.1%를 기록했다.

시세의 경우 254억7000만원의 발생액 중 122억2300만원을 정리하며 132억4700만원으로 체납액을 감소시켰다.

시세 체납액은 2019년도 이전 87억 1500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45억3200만원이다.

지난해 징수율은 54.4%다. 시는 체납 지방세 제로화를 위해 목표 관리제 운영에 집중한다.

지방세 정리 목표를 지난해 징수율인 54%로 삼고 분기별 목표액을 설정해 연 4회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을 근절한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 기동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 향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징수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비대면 징수와 함께 모바일 납부 안내문 발송, 고액 체납자 전화 독려 등을 통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500만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등록면허세납부기간 운영

군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1,119건 6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되며, 납세자는 1

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국은행 CD/ATM 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민

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우성화학이 14일 군산시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우성화학,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군산시는 (주)우성화학(대표 석상신)이 14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자 군산시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주)우성화학은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다.

기탁식에 참여한 석상신 우성화학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보

다 힘든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려는 성금품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준 (주)우성화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가 농어촌 안전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농어촌에 KF94 마스크 3천매 전달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가 농어촌 안전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장병수, 문현순)가 지난 13일 농어촌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3천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안전한 군산 만들기 방어의 날 운영을 통해 시 전역에 방역활동 등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고민하던 중 뜻을 모았다.

장병수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마스크 지원을 통해 농어촌 안전취약계층분들의 전염병 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까지 9.15% 세액 공제

익산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 받는다. 세액 공제율은 9.15%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이달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다.

선납을 원할 경우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59-5632)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4000여건을 지난 12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부재원의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역 주차장 확대 조성

익산시는 익산역 이용객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 조성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해 면수를 확충한다.

올해는 토지보상비와 시설설계비 30억원 중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는 추정공사비 50억원 중 25억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해 주차장 확충에 나선다.

시는 올해 시설설계용역을 추진해 기존 주차면수 80면에서 200면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축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한 익산역 철도 이미지 제고에도 주력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익산역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